

현대 건축 디자인에 토속적인 성향의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roduction of vernacular Phenomena into Modern Architecture Design

남경숙* / Nam, Kyung-Sook

Abstract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we could find rough and stiff feeling expression as a special phenomena. This style is combined regionalism to the modern spirit that we could imagine such a phenomena of the modern design toward vernacular culture. It's conception is conformed to the regionalist architecture in that period and the 3rd world experiences. From 1930s resident house, Le Corbusier introduced vernacular phenomena that considered productional condition of the region and regional environment. This tendency attempted by few young architects. They built building in vernacular phenomena based on the 3rd world experiences and Le Corbusier's architecture. After Le Corbusier's unité d'habitation in Marseille, Ando Tadao, Paul Rudolf, Roland Simounet, Aldo van Eyck etc built modern architecture by the rough, uncivilized and natural finishing with diversified material. But Le Corbusier's intention concerned not only to finishing of material but also to practical and human building as he had experienced in vernacular architecture.

키워드 : 토속적인 성향, 거친 마감, 르 꼬르뷔제

1. 서론

1.1. 연구목적

건축에서의 마감재 표현은 시공과정에서 보면 완성 단계에 속하며 모든 분야의 총체적인 결실이라 볼 수 있는데, 현대 건축에서 이런 마감재의 질감 표현에서 나타나는 한 특이한 현상으로 거칠고 투박하며 자연적인 느낌이 나도록 처리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물적 소재에 따라, 건축가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의 마르세이유 집합주택을 시발점으로 하여, 스미슨(A&P Smithson)의 훈스탄튼 학교, 폴 루돌프(Paul Rudolph)의 예일대학의 건축.예술학부 건물, 안도 다다오(Ando Tadao)의 카오시마대학, 롤란 시무네(Rollan Simounet)의 프랑스 북부 역사 박물관 등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시각적 이미지가 강조된 거친 마감처리를 한 디자인으로 현대 산업사회의 매끄러운 테크놀로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토속적인 문화를 향한 현대 디자인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벌써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현대 건축 디자인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이런 양상을 하나의 결과물로서만 간과할 뿐, 그 근원이나 도입, 전파되는 과정 등에 관해서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¹⁾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1) 그 개념형성의 근원은 어디인가? 토속적인 건축에서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서인가? (2) 그 도입과정은 어떠한가? (3) 이는 어떻게 전파되고, 발전되어 표현되고 있으며 (4)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현대 건축에서 거칠고 투박하며 자연미 있는 느낌이 나는(본 논문의 제목에서는 이를 "토속적"이라는 표현으로 함축하였다) 마감처리의 도입을 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1) 지역주의 건축과 토속성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현대건축에 토속적인 성향 도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축가로 르 꼬르뷔제를 선정하여, 그의 제 3세계에서의 건축경험 등을 개념형성

1) R. Banham, The new Brutalism, London, 1966, Le Brutalisme en architecture, Dunod, Paris, 1970, P.127 : 반함은 르 꼬르뷔제의 마르세이유의 집합주택 같은 후기 작품을 브리탈리스트 건축(Brutalist architecture)으로 정의 하였고, 그 특징으로 "시각적 이미지, 구조의 명백한 노출, 거친 마감처리의 건축"이라 하였다.

* 정희원, 신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전임강사, 예술사학박사

의 근원으로 설정하였다.

(2) 이런 영향으로 형성되는 르 꼬르뷔제의 30년대 주택을 현대건축의 토속적인 성향으로 접근하는 기원으로 보고 이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는 파리의 르 꼬르뷔제 연구소에 소장된 설계 계약서와 설계 일지 등을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르 꼬르뷔제가 남긴 7권의 작품집(OEuvre complète)은 르 꼬르뷔제 연구에 확실한 자료로 게재된 그림은 여기서 발췌한다.

(3)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홀란 시무네, 루이 미겔(Louis Miquel)의 제 3세계에서의 건축활동을 본다. 이는 르 꼬르뷔제의 토속적인 주택에 이어 토속적인 건축에 대한 건축가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대건축에서 토속적인 요소 도입의 한 단계로 보았다.

(4) 르 꼬르뷔제 후기 건축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는 앞선 작품들이 후기작품의 기원으로서 작용했는지의 연관성을 검증하면서 토속적인 성향이 정착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단계가 된다.

(5) 이어 토속성의 요소가 현대건축디자인에 전파되는 것을 보는 단계로, 여기서는 1950년대를 주축으로 르 꼬르뷔제의 작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스미슨 부부, 제임스 스틸링 등의 작가 작품과 이를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시켜나간 작가로 폴 루돌프, 안도 다다오, 홀란 시무네 등을 선정하여 그들의 작품을 조사하는 단계로 이는 토속성의 성향이 현대 건축디자인에 전파 발전되어 나가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목적하는 현대 건축디자인에 토속적인 성향이 도입되는 상황을 규명한다. 나아가 이는 각 디자이너의 디자인 방법론이면서 현대 건축의 한 양상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2. 토속적인 성향에의 접근

2.1. 르 꼬르뷔제의 토속성에의 탐구

(1) 지역주의 건축과 토속성의 개념

건축에서의 지역주의는 19세기 말, 지역분화를 애호하는 프랑스의 비올레 러 뉁(Villet-le-Duc, 1814-1879)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파리의 젊은 건축가들이 예술학교에서 배웠던 아카데미즘에 반대하고, 지역의 토속적인 건축을 발견함에 발전된다. 이들은 이를 분석하고 재인식하여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현대 비평가들에 의하면, 이 젊은 세대들은 "지역주의자"라는 이름 아래 모이게 되는데 이는 지역 건축에 현대화된 건축과정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자는 기후를 고려하고, 지역고유의 재료를 이용하는 2가지 원리를 중요시 여기며, 토속적인 건축을 참조한다. 이 지역주의 건축은 1920년대에서 40년대³⁾까지 많이 건설되었다.

2) J. -C. Vigato, L'architecture du régionalisme : Les origines du débat (1900-1950), Dossier et Document, n°4 décembre, 1983

J. -C. Vigato, Architecture régionaliste, Norma Editions, Paris, 1994, p.9

3) F. Arnold, Du régionalisme Architecture Intérieure, Créa, n° 249, 1992.

건축 역사가이고, 비평가인 제랄드 모니에(Gérard Monnier)에 따르면, 건축에 있어 지역주의는 2가지 성격을 갖는다. "하나는 지역 환경과의 일치와 보존을 위하여 지역 고유의 건축 양식을 존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성향에 의한 절충주의의 확장인 그것이다. 후자는 제 1차 세계대전 후 엘리트 층이나 부르조아 계층이 선호한 것으로 현대적인 건축양식에 지역적 건축 양식을 부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주의는 제 1, 2차 세계대전 후, 지역 전통에 뿌리를 두고 현대화된 사고를 표현하려는 전쟁 후 복구 과정에서도 나타난다."⁴⁾

윌리엄 제이 알 커티스(William J R Curtis)에 따르면, "지역주의는 1930년대 유럽에서 많이 논란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토속적인 요소(vernacular motifs) -우진각 지붕, 나무로 된 보, 깊게 처리된 처마 등 - 로 표현적인 처리를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대중적인(popular) 이미지와 연결된다."⁵⁾ 고 하였다. 이렇듯 지역주의는 유럽에서 19세기 말에 시작되어, 1930년대에 많이 논란이 된 것으로, 이들은 현대적인 건축양식에 지역의 환경과 건축양식을 부합시킨 것으로, 자연적인 건축재료와 지역 노동자의 수작업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람푸나니(Vittorio Magnago Lampugnani)의 지역주의 설명에서 더 정확하게 나타난다. "건물이 신중하게 경관 속에 배치된다. 그 모형은 지역적 분위기와 밀접하게 결부되기 때문에 배치 및 형태는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벽돌, 자연석, 목재 같은 자연적인 건축재료가 이용되며, 건설방법 혹은 구조 디테일은 수작업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형태언어는 지역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⁶⁾

이러한 1930년대 건축에서의 지역주의 성향은, 1950년대 부터 르 꼬르뷔제의 후기 건축에 영향을 주게되며, 이는 앵글로 색슨계 건축가들에게 뉴-브리탈리즘(New- Brutalism) 건축을 가져오게 한다. 1964년 버나드 루돌스키(Bernard Rudofsky)가 '건축가 없는 건축'이란 저서를 발표하여, 원시적이고 토속적인 건물을 소개함으로써 지역주의 성향은 1960년대 토속성의 속성을 더하여 발전하게 된다. 그에 의하면, "토속적인 건축(Vernacular Architecture)은 유행을 따르지 않고, 변함이 없으며, 진보도 없다. 이 같은 현상은 토속적인 건축이 그 자체의 목적에만 대답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건축의 형태와 고유한 건축법의 기원은 모르는 사이에 소멸된다."⁷⁾ 면서 토속적인 건축의 성향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 예로 지중해 지

pp.47-55

4) G. Monnier, Histoire critique de l'Architecture en France 1918-1950, Philippe Sers, Paris, 1990, p.344

5) W. J. R. Curtis, Le Corbusier : ideas and forms, Phaidon, London, 1986, p. 116

6) Magnago Lampugnani V., Architektur und Städtebau des 20 Jahrhunderts, 현대건축사조개관, 김경호, 이강호역, 기문당, 1980, p.248

7) B. Rudofsky, 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64, p.1 : 루돌스키는 L'Architecture Insolite, Taillandier, Paris, 1979, (초판은 New York, 1977)를 발표함으로써 건축가 없이 지어진 건축에 대해 설명을 구체화한다.

역의 전형적인 주택들을 제시하였다.

모니에(G. Monnier)는 “토속적인 건축”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자발적인 확산을 하며 지역 문화에 새김을 하는 건축”⁸⁾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는 건축이 전통적인 기술과 건축 방식들을 가지며, 지역적 조건들에 부합되며,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며 형태적인 특성을 가진 건물을 의미한 것으로 지역주의 건축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현대건축에서의 토속성에 관한 언급을 볼 수 있다. 프람톤(Kenneth Frampton)는 1950년대의 르 꼬르뷔제의 마르세이유 집합주택 등의 건물에서 거칠고 투박하며 꾸밈없이 재료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 거친 콘크리트(Béton brut) 마감표현에 대하여 “토속적(vermacular)”이라는 표현을 하였고, 그 전체적인 규모와 함께 이러한 건물에 대해 “토속성의 거대화(monumentalisation du vernaculaire)”⁹⁾ 현상이라고 하였다. 모니에는 “르 꼬르뷔제의 30년대 건축은 20년대의 완벽한 기계주의 모델과는 매우 다르며, 50년대 상상적인 브리탈리즘 현상은 30년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¹⁰⁾고 하여 30년대 지역주의 건축을 브리탈리스트 건축의 기원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르 꼬르뷔제에 있어서 토속성의 탐구의 배경을 1930년대의 지역주의 건축에 두었고, 이는 르 꼬르뷔제의 1930년대 초 제 3세계에서의 토속적인 건축에의 경험에 의해서 더욱 확고해진다.

(2) 제 3세계에서의 경험

르 꼬르뷔제는 1931년 알제리의 카스바(Casbah)라 불리는 인구 250,000정도의 폐허가 된 도시와 엠자브(M.zab) 지방을 방문하여 수세기 동안 변함이 없는 원시적이고 토속적이며 자발적이며 인간적인 건축을 발견하게 된다. 건축가는 아랍 주택 건축은 “생활의 방식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라 하면서 건축과 생활 사이의 긴밀성을 강조하였다. 알제리의 토속적인 건축에의 경험은 우리 시대 창조자에게 이러한 건축은 인간을 위주로 한 것이며, 실용적이며, 자연의 조건에 잘 순응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어, 건축적 토속성과 실용성을 가르쳐 주었다. 이는 르 꼬르뷔제의 30년대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토속적이고 원시적인 문화를 현대건축에 도입하려는 것은 제 4차 국제건축학회(Congrès Internationaux Architectes Modernes-CIAM)¹¹⁾에서도 거론되었다. 이 기간에 르 꼬르뷔제와 대부분의 회원들은 에게해의 델로스(Délos), 미코노스(Mykonos), 산토리니(Santorin), 세리포스(Serifos) 등의 섬을 방문한다. 이 곳의 주택은 조형성, 순수한 색채 등으로 돋보였으며 회원들은 여기서 토속적인 건축미를 발견하였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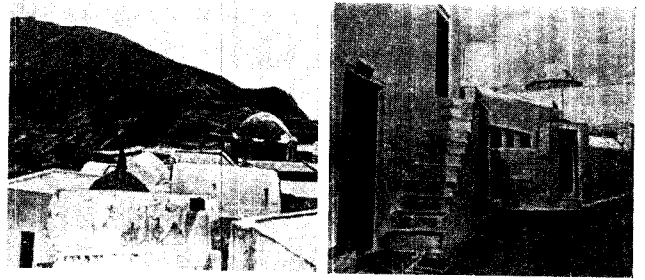
8)G. Monnier, op. cit., p.319.

9)K. Frampton, L'architecture moderne, Philippe Sers, Paris, 1985, p.195

10)G. Monnier, op. cit., p.319

11)제 4회 CIAM은 마르세이유에서 피레(Le Pirée)를 왕복하는 선상과 아테네(Athènes)에서, 1933년 7월 29일에서 8월 10일 사이에 16국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2)Le Corbusier, Point de départ, Le voyage en Grèce, printemps été,



a) 미코노스섬의 주택

b) 세리포스섬의 주택

<그림 1> 에게해 지역의 토속적인 주택

출처 : P.Djelepy, Les maisons de l'archipel Grec - observées du point de vue de l'architecture modern, Cahier d'art, n° 1-4, 1934, p. 93

토속적인 건축은 이제부터는 르 꼬르뷔제에 있어 하나의 모델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다.¹³⁾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리스 건축가 파노스 디레피(Panos djelepy)의 글이다. 이에 따르면, “에게해 섬의 주택은 사용자들에게 추위와 태양, 바람 등에 견딜 수 있는 실질적인 피난처를 제공하며, 장소에 적응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생산 조건을 고려하여 거주자 스스로 손수 지었다. 이는 자연의 조건을 고려하고, 본능에 따라서 지어진 “실용적인” 건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택들은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며 어떠한 장식도 없이 그들 거주자들의 생활의 필요와 방법, 장소에 적응된 건축으로 여기에서 진정한 조형성을 찾을 수 있다.”¹⁴⁾ 이런 건축은 현대 건축과는 거리가 있지만, 순수하고 원시적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건축가는 기후, 재료, 사회적인 구조에 응답하는 건물을 보았고, 인간의 실제적인 필요에 의한 건축물을 배웠다.¹⁵⁾ 이러한 스타일도 없고, 건축가도 없는 건축은 현대 건축과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을 제공하게 되고, 이는 르 꼬르뷔제 건축에서 토속적인 요소를 창조하게 하였다. 비교적 제한적인 “자연”이란 단어에 비하여, 이 기간은 르 꼬르뷔제에게 새로운 언어를 찾게 하였고, 이 경험은 토속적인 건축을 참조한 작품들에 나타날 것이다.

1934, p.16

13)Le Corbusier, La ville radieuse, Freal et Cié, Paris, 1964, p. 52. : “1933년 그리스에서 국제 건축학회가 열렸다. 우리는 에게해의 여러섬들을 방문하였다. 수백년 된 생활이 중단지 않은 상태에도 있었다. 도로는 아직 없고, 우리는 거기서 영원 불멸의 집들을 보았고, 이것은 우리가 심전년부터 상상해 오고 있던 것들이었다.”

14)P.Djelepy, Les maisons de l'archipel Grec - observées du point de vue de l'architecture modern, Cahier d'art, n° 1 4, 1934, pp.93 94. : “부피와 치수와 창은 항상 내부 평면에 의존하고, 과장되지 않으며 단순한 시공은 전통적인 기법에 따라 결정되었다. 구조에 있어 복잡함도 없고, 부자연스런 형태도 부정확한 경향도 없다. 외부벽은 장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창문이나 문, 단순한 물받이나 작은 지붕창으로 불규칙하게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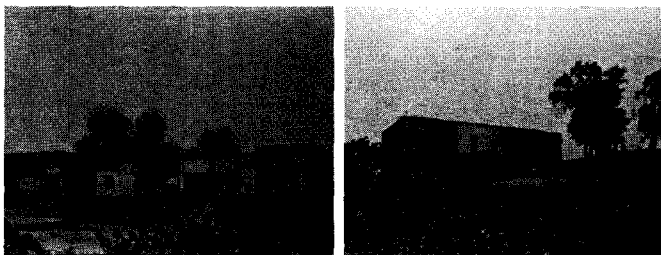
15)Le Corbusier, Point de départ', op. cit., p. 16. : “여기에 우리 서양의 출발점이 있다. 오늘날까지 중단지 않고 있는 아주 예외적인 단순함, 주위 경관과의 일치, 채광, 인간문화의 순수함, 휴, 태양, 그리고 우리 인간.....” 을 이야기 하면서 우리 건축의 한 지표로 삼을 것을 암시함.

(3) 토속적인 건축에 접근의 실례

유럽에서는 30년대 초 경제공황의 여파 때문에 건축 분야에서는 많은 수요가 없었다. 특히, 르 꼬르뷔제의 경우도 소수의 건축주에게서만 휴가나 주말을 보내기 위한 주택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지어 줄 것을 청탁받는다. 르 꼬르뷔제는 건물 계획시에 건물이 위치한 장소의 조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새로운 관심을 나타내었다. 주변 경관과 지역적 특성, 즉,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와 지형, 일조 조건, 노동인력 등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그 장소'의 조건에 잘 부합되는 건물을 지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이고 산업적인 현대화와는 대조가 되는 과거의 전통적 건축기법의 도입은 지역주의와는 구별 될 수가 없으며, 이는 현대화된 건물에 있어 토속적인 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개념들에 의하면, 르 꼬르뷔제의 30년대 주택은 지역적인 조건이 도입된 토속적인 미를 가진 건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프랑스 남부의 만드로 빌라<Villa Mandrot, 1930, 그림 2>는 건축가가 푸리즘 시대에 짓던 정교한 순백의 건물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르 꼬르뷔제 작품의 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최초의 실행 작품이 되었다.¹⁶⁾ 45cm 두께의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 특유의 돌로 된 벽면은 돌 사이를 흠손으로 석회칠을 거칠게하여 실내외를 마감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돌과 석조공사의 거친 처리는 오래된 전통의 상징인 토속적인 건축을 표현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이고, 아카데미즘의 퇴색되고 무가치함에 반대한 르 꼬르뷔제의 새로운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수작업에 의한 장인적인 생산의 고풍스러움을 향한 현대 운동의 한 시도가 될 것이다.

프랑스 대서양 연안 맛뜨(Mathes)의 바캉스 주택<1935, 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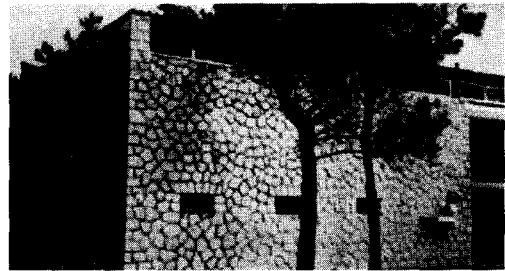
a) 빌라의 정면 b) 빌라의 뒷면

<그림 2> 르 꼬르뷔제, 빌라 만드로 (La Villa Mandrot, 1930)

출처 :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29-1934, Zurich, Les Edition d'Architecture Artémis, 1965, p. 124

16) 칠리의 대서양 연안의 에라쥬리(Errazuriz, 1930) 주택 계획안은 르 꼬르뷔제의 최초의 지역주의 건축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실행되지 않았다. 이 주택은 전통적인 건축기법으로 모든 복잡한 구조는 제거시키고, 통나무로 기둥을 세워 보를 지지하였고, 벽은 1층까지는 거친 돌로 이루어지며 그 윗 부분은 석회로 마감되고, 경사진 지붕은 기와로 덮여진다. 유일하게 화려한 재료로는 창이 유리를 들 수 있다. 현대적 구조에 지역의 토속적인 재료를 선정함은 건축가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말 안토닌 레이몽(Antonin Raymond)에 의해 일본에서, 알토(Alvar Aalto)에 의해 빌라 마레(Villa Mairea, 1938)에서 다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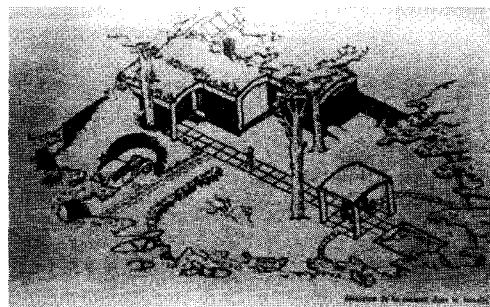
과 파리 근교의 셀 생 크로드<Celle-Saint-Cloud, 1935, 그림 4> 주말 주택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어진다. 맛뜨 주택은 통나무, 마루판, 시멘트 석면판 등의 재료 사용면에서 뿐만 아니라, 조형적인 형태를 완전히 새롭게 하려는 의도로도 건설되었다. 건물 두 벽면은 길게 늘어져 있고 두 벽면은 박공으로 지붕의 두 면은 굴곡이 있는 시멘트 석면판으로 중앙으로 향하여 기울어진 것으로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던 지붕과는 반대되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런 구성에서 자연적인 재료는 경치와 조화를 이루며 토속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그림 3> 르 꼬르뷔제, 맛뜨 주택 (La maison de Mathes, 1935)

출처 :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34-1938, Zurich, Gisberger, 1935, p. 134

르 꼬르뷔제에 의하면 "재료의 토속성은 명확한 평면과 현대 미학에 어떠한 구속도 받고 있지 않다."¹⁷⁾ 하였다. 이는 재료 처리의 독립성을 말해 준다. 전통적인 재료와 현대 구조의 통합은 반대되는 미의 경우이기 때문이다.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낮은 아치의 단순한 형태가 주요 원리가 된 셀 생 끌로드 주택은 자연석, 가공되지 않은 벽돌 등의 경제적이고, 인간미 있는 재료로 되어 이들은 토속적인 성향으로 접근하는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그림 4> 르 꼬르뷔제, 셀 생 크로드 주택(La Celle-Saint-Cloud, 1935)외관

출처 :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34-1938, Zurich, Gisberger, 1965, p. 124

이 주택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대조되는 재료가 주는 효과들을 수가 있다. 유리 벽면과 자연적으로 된 벽면, 투명한 면, 반 투명면, 불 투명면, 그리고 공업적이거나 토속적인 재료로 되어 있다. 대조되는 재료를 동시에 사용한 것은 표현적이고, 조형적인 방법으로서의 주택의 근본적인 현상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만드로 주택의 경우처럼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토속적인 경향은 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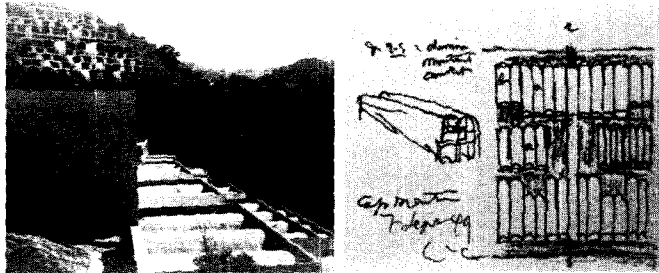
17)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29-1934, Zurich, Gisberger, 1935, p.48

하게 덮여진 아치에 의해 표현되어진다. 이러한 지역주의적인 건물은 30년대 혁신적인 면을 나타내 보인 것으로, 이는 국제적인 스타일을 고려하면서 반 도시적인 행위를 한 것이며 현대화와 고풍스러움의 통합을 통한 건축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¹⁸⁾

2.2. 소수 젊은 건축가들의 추구

건축에서 토속성에의 탐구는 르 꼬르뷔제의 작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 3세계에서 토속적인 건축에 접하면서 건축활동을 하였으며, 르 꼬르뷔제 주위에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받은 젊은 건축가들에게서도 시도되었다. 롤란 시무네(Roland Simounet, 1927-)는 알제리의 빈민촌에서, 루이 미겔(Louis Miquel, 1913-1986)은 북 아프리카 마그레벵 지역에서, 장 보쉬(Jean Bossu, 1912-1983)는 전쟁 후 복구 과정 중 농가 건축에서 지방의 토속적인 건축을 통하여 그들의 건축 개념을 부가시키면서 새로운 건축 방법과 사고의 기초가 되는 시도를 하였다.

알제리의 빈민촌은 제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빈민촌은 주변 경관을 망쳤고, 이슬람교인 지역을 과밀화시켰다. 정부에서는 프레즈발론 재국의 빈민촌을 철거한 후 그 곳 거주자들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단순하고, 경제적으로 210채의 집단주거인 디난엘아산(Djenan-el-Hasan, 1956-1958, 그림 5)을 건축하게 하였다. 시무네는 30°에서 45°의 경사지에 지형의 특성을 살려



a) 디난엘아산 b) 호크 앤드 호브

<그림 5> 롤란 시무네, 디난엘아산(Djenan-el-Hasan, 1956-1958)과 르 꼬르뷔제의 호크 앤드 호브(Roq & Rob, 1949)

출처 : Roland Simounet, Roland Simounet, Electa Moniteur, Paris, 1986, p. 43.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46-1952, Zurich, Gisberger, 1965, p.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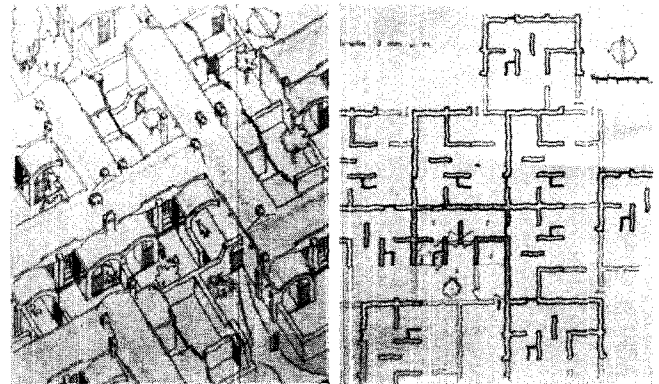
단식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토속적인 볼트형의 지붕을 가진 단위 주택이 평행한 길에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정리되어 전체적으로 벌집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모든 집은 흰 석회와 벽돌로 마감되어 동일하게 처리되었는데 이는 재료와 지형과 경제를 고려하여 얻은 결

18) 르 꼬르뷔제의 토속적인 건축을 향한 관심은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풍스러움과 원시성을 강조하면서 북아프리카의 페이리삭(Peyrissac, 1942) 주택과 시메 페르마넌트(Cité Permanente), 호크 앤드 호브(Roq et Rob) 등을 계획하였는데, 이는 가장 오래되고 고귀한 전통을 이으면서 진정한 지중해 건축을 이루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일종의 지역 건축물로서, 지중해 연안의 경사지에 지어진 바캉스 주택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과가 되겠다. 이는 르 꼬르뷔제의 호크 앤드 호브(Roq & Rob, 1949, 그림 5) 계획안에서 실현되지 못하였던 것을 실제로 건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무네의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로마인 도시인 팀가드(Timgad)에 전원의 수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안에는 기후, 원주민, 지역적인 풍습, 고대 도시의 잔재들이 반영되었다. 공공건물이나 개인건물이 같은 건축적 요소로서 이루어졌다 : 콘크리트로 된 기둥, 거친 시멘트로 처리된 벽, 아치형태로 된 천장, 물받이 등 모든 이런 요소들은 반복되어, 통일되고 견고한 느낌을 주며, 그 지역의 노동자들에 의한 시공은 모든 산업적인 방법은 배제하게 하였다.

마로크에서 루이 미겔은 지역의 토속적인 건물을 모델로 한 소박한 형태의 주택단지(그림 6)를 계획하였다. 북아프리카의 전통적인 도시계획방법이 반영되어 5개의 단지가 좁은 도로에 의해 분리되고, 주택은 단조로움을 피해서 2방향으로 배치되었다. 벽은 돌에 거친 석회로 그 사이를 메꾸어 처리되었고, 지붕은 튀니지 지방에서 사용하던 전통적인 방법인 벽돌과 회반죽으로 아치를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마로크의 토속적인 건축에 접할 수 있었다.



<그림 6> 루이 미겔, 마로크 지역의 토속적인 건물을 모델로 한 소박한 형태의 주택단지 계획

제 2차 세계대전으로 프랑스의 경우 150만 호의 주택과 9만 천 호의 산업체가 파손되었고, 독일의 경우 1,050만 호의 주택 중 230만 호가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거의 10년간 계속되는 복구를 위해 프랑스 재건설부는 현장에 지역의 전통과 조건에 적합한 건물을 지으라는 재건축의 지침을 낸다. 이에 장 보쉬는 4천 3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광부촌을 지역적 절충주의의 특징으로 재건하였다. 이렇듯 지역주의 건축은 개인적인 건물에만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3. 토속적인 성향의 도입

3.1. 르 꼬르뷔제의 후기 건축에 나타난 토속성

르 꼬르뷔제의 1930년대 빌라 건축에서 체험한 자연적인 재료들

의 마감처리는 50년대 마르세이유의 집합 주택에서와 같은 산업화된 건물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전쟁 전의 기계주의 기술을 버리고, 간결한 형태에 재료의 거칠고, 단순하며, 자연적인 표현에 의한 마감으로 현대 건축디자인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콘크리트 벽면 처리에서 거친 나무 거푸집을 사용하고, 그 자체로서 표면을 마무리하여, 거칠고 미완성된 듯한 표면을 나타내어 건축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전쟁 전에는, 콘크리트는 미적인 가치가 무시되었던 재료이었다. 이는 페인트칠 밑에서 거친 상태를 숨기고, 경제적인 제한을 받지 않던 공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마르세이유에서는 자연적이며,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거친 상태를 그대로 들어내었다.¹⁹⁾ 거푸집의 거친 표면 처리²⁰⁾로 콘크리트 면은 풍부한 자연미를 나타내었다. 마르세이유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재료들이 산업화에 의해 표준화되고, 규격화되며, 이들의 처리 과정은 조립과 건식공법의 기술을 따르고 있다. 이것은 토속적인 성향이 현대적인 생산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통상 교회, 생마리 드 라뚜엣 수도원, 샹디가 등에서와 같이 르 꼬르뷔제의 후기 작품에서 계속 나타난다.

르 꼬르뷔제는 생마리 드 라뚜엣 수도원에서는 단순한 사각형의 건물에 콘크리트를 강렬하게 표현하여 마감하였다. 이에 원색의 다색상(polychrome)을 사용하여 야수와 화가의 그림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강렬하고도, 원시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흰 회벽으로 마감한 통상교회의 흰 벽은 르 꼬르뷔제가 30년대 알제리의 엠바브 지방과 카스바 지방, 에게해 섬의 원시적이며 토속적인 주택건물에서 경험하였던 거칠고, 투박한 질감의 흰 회벽 건물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이는 그 곡선적인 형태의 아름다움과 함께 외부에서 보면 더욱 선명히 빛난다. 르 꼬르뷔제는 2개의 종교건물을 지으면서 콘크리트와 회벽을 토속적으로 표현하려 하였고, 그 이미지를 다색상을 사용하여 더욱 강렬하게 나타내었다.

이러한 토속적인 성향은 인도에서의 작품에서도 계속된다. 빌라 쇼댕(Shodhan)과 빌라 샤라비(Sarabhi), 박물관 등에서 이들은 볼륨의 투박함과 거친 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이는 샹디가에서 대형의 공공건물들을 짓기 전에 실행된 것으로 건축 방법과 기후적인 제약에 관한 실험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샹디가 북부에 위치한 국회, 대법원, 사무국 건물 등에서는 프람톤이 지적한 “토속성의 거대화”²¹⁾ 현상이 그 절정에 달한다. 여기서 재료는 미적이며 경제적인 기준에 의해 정해졌으며, 재료의 “있는 그대로”, “표현적인 이미지”에 강조

를 두었다. 그래서, 마감은 원시적으로 거칠게 처리되었고, 손으로 시공함으로 그 거칠음의 표현은 최상에 도달했다. 게다가, 지역의 햇빛을 고려한 햇빛 막이(brise-soleil), 아치 등의 표현적인 조형 요소²²⁾를 첨가함으로, 이러한 건물들은 토속적이고 지역주의적인 경향에 상징성으로도 특징지워진다.

이 시대는 예술에서 조형성의 개념이 강조되어 가고 있었으며, 건축과 예술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시각적으로 거친 재료의 표현과 함께 아주 밀접하게 이루어진다. 원시적인 문화의 영향은 이런 기준에서 예외는 아니다. 원시성은 대부분의 현대 디자인에 나타나는데 특히, 원시 예술, 거친 예술, 어린이 예술 같은 단어는 “신선함”, “자발성”, “순진함”, “순수함”, “솔직함”, “진정함” 등의 단어와 함께 혼돈된 상태로 흔하게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런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르 꼬르뷔제의 시각적으로 거친 재료의 발견으로 그의 후기 작품들은 시대의 미학과 병행하였다 할 수 있다. 이렇듯 그의 후기 건축은 자연주의적 건축과 인간적인 건축으로 향하려 한 것으로, 이들은 하나의 건축 스타일을 제공하였고, 이로부터 건축가들의 많은 연구가 행하여졌다.

4. 토속적인 성향의 전파

소수의 젊은 건축가들은 종종 학교 교육체제와 방향에 대한 반항으로 르 꼬르뷔제의 디자인 경향을 따랐다. 그들의 관점은 무엇보다도 재료와 시공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콘크리트 뿐만이 아니라 벽돌, 블록 등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현대적인 건물에 토속적인 표현 방법을 채택하였다.

4.1. 1950년대

영국의 스미슨 부부(A&P Smithson, 1928-, 1923-)는 르 꼬르뷔제의 마르세이유 집합주택 건설 당시 현장을 방문하고, 1954년 훈스탄톤(Hunstanton) 학교를 건설한다. 이 건물은 이제까지의 학교건물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건물의 구조, 기능적인 배수관 등의 형태를 외부에 노출시키고, 사용된 재료의 거친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들어내었다. 여기서 스미슨 부부는 르 꼬르뷔제의 집합주택에서처럼 새로운 미학을 내놓았으며, 이는 영국에서 신 브리탈리즘(new-brutalism)을 가져오게 한 건물로 영국 건축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다.

제임스 스티링(James Stirling, 1926-)과 제임스 가윈 (James Gowan)의 함 코먼(Ham Common, 1958, 그림 7) 집합주택은 벽돌과 콘크리트가 주재료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재료의 사용에서 뿐 만이 아니라, 아치와 대들보, 물받이의 조형적인 처리에 이르기까지 르 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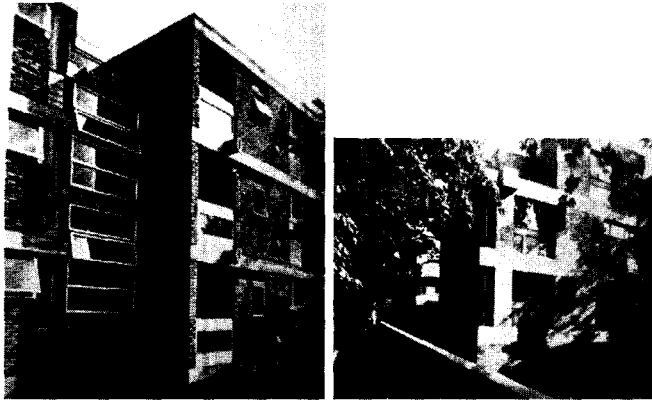
19) 거푸집을 떼어낸 후 거친 콘크리트의 사용은 1932년 파리의 대학 기숙사촌에 있는 스위스관에서 벌써 시험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콘크리트에 돌이나 구은 흙과 같은 자연적인 재료의 질을 나타내기는 충분하지 않았다.

20) 나무로 된 거푸집 자국을 가진 거친 콘크리트는 파사드, 필로티, 구조체 등 장소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었다. 거푸집의 결과로 나타난 나뭇관의 자국은 재료의 거칠음을 나타내고, 현장에서의 작업 전개 과정을 나타낸다. 외부에서는, 혼합된 요소들이 조립된 콘크리트로 파사드를 형성하고, 채색은 로지아 부분을 제외하고는 하지 않았다.

21) 각주 9 참조

22) 조셉루이 세르(Josep Lluís Sert)의 프랑스 남부 방스지방에 있는 막(Macgth) 박물관은 르 꼬르뷔제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꾸로 된 반원형의 지붕과 아치의 천장으로 특징지워진다.

르뷔제의 자울주택(jaoul, 1956, 그림 6)²³⁾을 연상시킨다.



a) 함 코먼 집합주택 b) 자울주택

<그림 7> 제임스 스틸링과 제임스 가윈 함 코먼(Ham Common, 1958) 집합주택과 르
코르뷔제의 자울주택(jaoul, 1956)

런던 주의회(London County Council-LCC) 건축부의 알톤 이스테이트 로함톤(Alton Estate Roehampton, 1959) 주택단지,²⁴⁾ 스미슨과 같은 세대들이 이보르 스미스(Ivor Smith), 잭 린(Jack Lynn), 프레데릭 니클린(Frederic Nicklin)의 집합주택 파크힐(Park Hill, Sheffield, 1961) 등은 마르세이유 집합주택의 거칠고 거대한 형태가 영국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르 코르뷔제의 뒤를 이어 1950년대에는 주로 앵글로 색슨계 건축가들이 토속적인 성향을 현대건축디자인에 도입하려 하였으나, 이는 르코르뷔제의 이 시기 건축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 나름대로의 새로운 면모를 나타내지도 못하였다.

스미슨과 함께 팀 텐 (Team-X)의 일원이기도 한 알도 반 아이크(Aldo van Eyck, 1918-)는 원주민족의 생활과 주택 형태가 일치됨에 감동 받고 그 상호간의 조직적 분석에 몰두하며, 다양한 크기의 볼륨으로 하나의 작은 도시 같은 사각형의 격자가 조직적으로 모여 있는 암스테르담의 시립 고아원(1961)을 설계한다. 여기서는 콘크리트, 나무, 벽돌, 유리 같은 재료의 사용과, 침실과 놀이 공간의 내부 처리에서 비가노(Vittoriano Vigano)의 장애학생 기숙학교인 마르치온디 학교(Instytut Marchiondi, Milan, 1959)와 분리하여 설명할 수가 없다. 차이점이 있다면, 마르치온디 학교가 엄격하게 표현되었다면, 고아원은 포근한 분위기를 주려하였다. 하여튼, 이 두 건물에

23) 자울주택은 자연적인 재료인 벽돌, 나무, 콘크리트 등과 유리와 같은 합성 재료를 사용하였다. 철근 콘크리트로 된 보퐁 건물 외부와 내부에 거푸집을 때낸 거친 자국이 있는 그대로 노출시켰다. 이는 특이한 거푸집으로 나무를 수직이나, 수평,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시킨 것으로 그 절단은 모퉁이에 따라 결정되고, 이러한 형상은 건축과 시공에서 하나의 전환기를 나타낸다. 노출된 벽돌은 시멘트 몰탈로 연결되어 있고, 내부의 칸막이 벽과 중앙의 벽은 석회로 되어있다. 노출 벽돌과 이음새는 여러 사람의 손으로 거칠게 표현 되었는데, 이는 표면의 단조로움과 정련됨을 피하려는 건축가의 의도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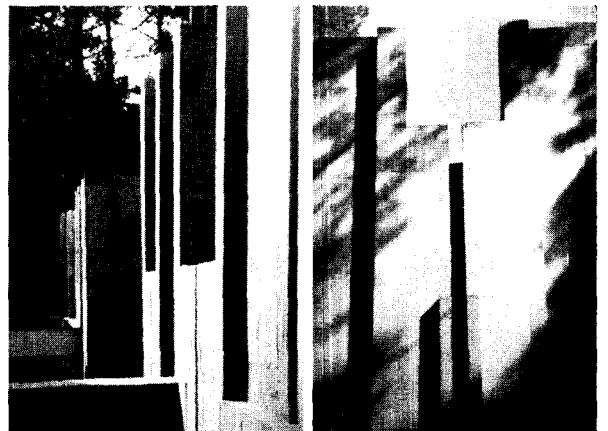
24) Cf. J. Jurgen, Tendance de l'architecture modern, Editions Karl Kramer, Stuttgart, 1969, p.108.

서는 특수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인간적인 환경이나 주택의 분위기를 나타내려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건물에서 우리는 거친 콘크리트나 벽돌들이 더 이상 “비 인간적인” 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토속적인 경향의 건물은 재료의 거칠고 투박한 마감처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시적인 건물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미 있는 건물을 표현하려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4.2.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

1950년대 르 코르뷔제의 토속적인 언어의 모방은 1960년대 이후부터는 건축가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표현방법과 시공방법 등의 개발로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된다.

프랑스의 롤랑 시므네(Roland Simounet, 1927-)는 그로노블(Grenoble)의 건축 학교와 너무르 (Nemour)의 선사시대 역사 박물관<1976-1980, 그림 8>에서 세로로 거푸집 자국을 강하게 나타낸 표면 처리를 함으로 르 코르뷔제의 미학을 능가하고 있다. 이 시기의 시므네는 지형을 고려하고 경제적이고 견고한 현대 건축에 토속적인 반향의 옹호자였는데, 이는 그의 알제리나 마로크 등의 지중해 지역에서의 토속적인 건축에서의 경험과 르 코르뷔제의 건축 방법과 사상에서 개념을 발전시켜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 시므네, 너무르 (Nemour)의 선사시대 역사 박물관 외벽의 노출 콘크리트의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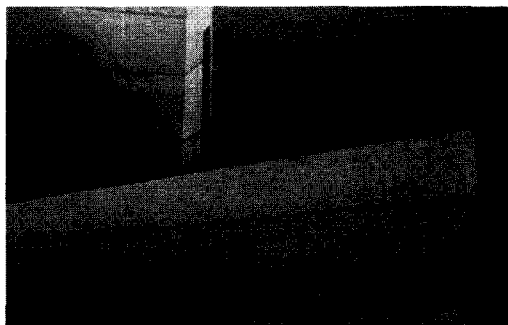
출처 : Roland Simounet, Roland Simounet, Electa Moniteur, Paris, 1986, p. 86.

현대 건축의 토속성에 입각하여 원시적인 미와 현대적인 기술의 통합을 통해 독창적인 건축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가로 안도 다다오 (Ando Tadao, 1941-)를 들 수 있다. 안도의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 재료의 선택은 들 수가 있는데, 안도는 르 코르뷔제의 거친 콘크리트(béton brut)²⁵⁾에서 발전하여 콘크리트를 재해석하게 된다.²⁶⁾ 르 코르뷔제가 거친 콘크리트에서

25) 콘크리트의 표면은 목재 거푸집에 의해 결정되고, 그 질은 거푸집의 정밀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타설 방법에도 의거하고 있다.

26) 그의 콘크리트로 된 판넬식 벽은 90cmx90cm의 규격으로, 이들 각자는 건축되는 동안 거푸집의 판들을 조이는 역할을 하는 6개의 구멍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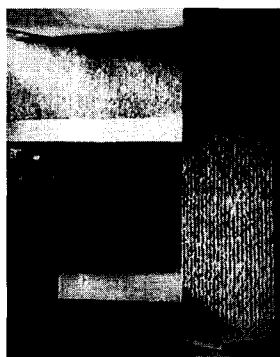
거푸집의 자국을 강조하였다면, 안도는 구조체들이 명확히 드러나는 팬넬식 먼처리 방법을 사용하였고, 여기서는 표면의 거칠음의 강도도 약하여진다. 그래서 사용되는 재료는 같지만, 거기서 나오는 느낌은 르 꼬르뷔제의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카오시마 대학 아오모리 회관<1993-1994, 그림 9>에서는 실내외를 콘크리트 판넬로 마감함에 따라 르 꼬르뷔제의 건물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거칠며, 투박한 느낌보다는 기하학적 판넬에 의해 전체적으로 안정된 질서와 섬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림 9> 안도 다다오, 카오시마대학 아오모리 회관(1993-1994), 외관.
출처 : Tadao Ando, GA, A.D.A. Edtta, Tokyo, 1995, p. 53

폴 루돌프(Paul Rudolph, 1918)는 여러 재료와 관련된 텍스처와 연결의 끝부분 처리에 관심을 가졌다. 콘크리트의 성질과 미국 동북부의 불규칙한 기후는 예일대학의 건축예술학부 건물 <1958-64, 그림 10> 실내외에서의 역동적인 파형 구조를 가져왔으며, 이는 콘크리트 앞끝부분을 부수어 갖가지 색의 골재를 노출시켰고, 텍스처는 장식보다는 빛을 받아 들이는 역할을 한다.

토속성의 요소에 자주 사용되는 벽돌에서는 거칠음의 표현이 벽돌의 형태나 불규칙한 표면에서 나타난다. 폴 루돌프는 경제를 고려하여 콘크리트 블록, 흙이 있는 블록을 개발하였다. 여기서 벽돌은 저렴한 공동주거 계획에 사용할 수 있는 조립식 이동주거단위(mobile home unit)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였고, 뉴 하번(New Haven)의 결혼한 학생들을 위한 집합주택(1960-61)에 나타난다.



<그림 10> 폴 루돌프, 예일대학의 건축예술학과 건물 디테일 (1958-64)
출처 : Paul Rudolph, Enigma of architecture, A+U, 1985

그래서, 안도가 만들어 낸 강렬한 건물들의 주재료인 콘크리트는 표면적인 표현이라기 보다는 그의 '건축 기술'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롤랑 시무네는 알제리의 마다가스카르 대학기숙사촌(1962-1970)을 적도지역의 열대성 기후를 잘 고려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경사지에 평행하게 설계하였다. 이는 경사진 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블록의 유연성을 나타낸다. 프랑스 남부의 바캉스 주택촌<Corse, 1969-1971, 그림 11>에서는 거친 블록에 석회로 투박하게 마감하고 있다. 단위 격자의 블록은 기하학적인 형태의 건물에 엄격함과 단조로움의 느낌을 더해 주기 보다는 오히려 거친 질감의 파행적인 요소로 토속적인 감을 준다.



<그림 11> 시무네, 코스의 바캉스 주택촌(1969-1971)
외벽 블록의 디테일

출처 : Roland Simounet, Roland Simounet, Electa Moniteur, Paris, 1986, p.86

이렇듯, 현대건축 디자인에서 토속적인 성향의 전파는 르 꼬르뷔제의 뒤를 이은 건축가들에 의해 다양한 재료와 표현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하여 다음의 몇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현대 건축 디자인에서 거칠고 투박한 마감 표현의 기원에 관한 의문은 30년대 르 꼬르뷔제의 활동에 귀결된다. 건축가는 그 시대에 많이 논란 되었던 지역주의 건축과 제 3 세계의 토속적인 건축으로 끌리게 되는데, 이것을 토속적인 성향 도입을 위한 개념형성의 근원으로 보았다.

(2) 르 꼬르뷔제는 30년대 만드로 주택, 맛뜨 주택, 셀 생 크로드 주택 등에서 토속적인 성향을 현대 건축에 접근시켰다. 르 꼬르뷔제에 있어 이 주택들은 현대정신과 복고주의, 국제주의와 지역주의,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등의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접합된 것으로 현대건축에 토속적인 성향을 가져오는 기원으로 보았다. 이러한 토속성의 탐구는 르 꼬르뷔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르 꼬르뷔제 주위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받고, 제 3세계의 경험이 있는 소수의 젊은 건축가에게서도 행해진다.

(3) 르 꼬르뷔제의 마르세이유 집합주택 이후 건축에서 토속성의

요소는 정착된다. 이들은 '거칠음'과 '투박성' '자연미' 등의 단어로 표현 될 수 있으며, 이런 마감재 표현은 앞선 시대의 경험에 의한 산물로 결론 지워질 수 있다. 그 후 르 꼬르뷔제에 동참한 현대 건축가들에게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전파되어 현대 건축의 한 특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현대 건축 디자인에서의 이러한 특징들 이외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르 꼬르뷔제는 그의 후기 작품에 제 3세계의 토속적인 건축에서 경험하였던 실용적이며, 인간적인 건축을 도입하려했다는 것이고, 이는 작품에서 재료의 정선되지 못한 투박하고 거친 마감처리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본 논문에서의 토속성의 의미는 재료의 표현만이 아니라, 실용성, 인간미의 개념까지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는 건축가의 산업화된 건축의 보편성에 대한 대항, 인간적인 접근, 전통적인 건축에 근거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다. 건축가는 건축에 잃어버리고 있는 이러한 고귀함을 돌려주기를 원하였으며 이는 르 꼬르뷔제 건축 방법의 근본개념으로 작용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이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는 매개체의 이용과 재료 및 질감, 개념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면, 앞으로는 현대 건축 디자인에서의 마감재료의 표현과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 디자인과 연결시킨 연구가 계속 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Banham Reyner, The new Brutalism, London, 1966.
2. Coley Catherine, Jean Prouvé, Centre Georges Pompidou, Paris, 1982
3. Curtis William J R, Le Corbusier : ideas and forms, Phaidon, London, 1986.
4. Frampton Kenneth, Histoire critique de l'architecture moderne, Thames and Hudson, London, 1980, Philippe Sers, Paris, 1985.
5. Le Corbusier and Jeanneret Pierre, OEuvre complète 1910 1929, Erlebach, Zurich, 1935.
6.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29 1934, Gisberger, Zurich, 1935.
7. , OEuvre complète 1934 1938, Gisberger, Zurich, 1939.
8. , OEuvre complète 1946 1952, Gisberger, Zurich, 1953.
9. Magnago Lampugnani Vittorio, Architektur und Städtebau des 20 Jahrhunderts, 현대건축사조개관, 김정호, 이강호역, 기문당, 1980.
10. Monnier Gérard, Histoire critique de l'Architecture en France 1918 1950, Philippe Sers, Paris, 1990.
11. , Le Corbusier, coll. Qui suis je?, La Manufacture, Lyon, 1986.
12. Petit Jean, Le Corbusier, Lausanne, Rencontre, 1970.
13. Pradel Jean Louis, Wilmotte, Electa Moniteur, Paris, 1988.
14. Rudofsky Bernard, Architecture sans architectes, Chêne, Paris, 1980.
15. Sbriglio Jacques, Le Corbusier, L'Unité d'habitation de Marseille, Parenthèses, Marseille, 1992.
16. Stirling James, "From Garches to Jaoul, Le Corbusier as Domestic Architect in 1927 to 1953", Architectural Review, no 18, septembre 1958.
17. Vigato Jean Claude, Architecture régionaliste, Norma Edition, Paris, 1994.
18. , Roland Simounet, Electa Moniteur, Paris, 1986

<접수 : 1998. 8. 6>